

阿彌陀化身인「치」喇嘛

哲學博士 白 性 郁

近來에와서 各地의 探險이 進歩함을 보아서 中央 亞細亞의 中心도 始作되엇나니 이 探險에 重要한 人物 인즉 近來에와서 瑞西學者스며 헤인이니 그는 일즉 노벨賞까지 受了다. 이로 말하면 多年間히 마라야 中心으로 하여 西藏·蒙古·印度·支那·露西亞에서 學術的 探險으로는 實事實을 世界에 紹介하는 中 尤히 歐洲人心이 佛敎를 알리함에 應함이 없지 如何佛敎에 對하여서는 妥善理解로 紹介하게 하였나니 自己는 恒常中立을 취하여 學者의 態度를 일치 아니함 도 그의 明確한 見地를 讀者界에 紹介하기에 不足한 威이 없다 할 만 同時에 尊敬을 산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이야이中 몇節을 다시 紹介하고자 한다.

前者 崑崙山 探險記中에서 大約은 西藏을 紹介하였 습으로 이에서는 오즉 喇嘛의 事情과 西藏의 形 便한을 紹介코져 한다.

「一九二四年春에 라치喇嘛가 西藏으로 부러 避身 하게 되엇습으로 瑞典의 新聞紙等으로 始하여 全世界 輿論은 大端히 그 리로 注目을 가게 하였나. 最中 上海와 北京에 잇는 英字 報들은 近來 西藏의 政治的 變動에 對하여 默言하지 아니하였습으로 因하여 비로써 再昨 五月에서 라치喇嘛의 避亂한 事를 公布하였나. 이通 信인즉 印度國境으로 부러 食킨을 經하여 崑崙山에서 正式으로 公布하기를 肉體를 가진 西藏의 神은 東部 西藏을 經하여 쿠쿠닐해(青海)로 甘肅省 蘭州에 逃 避하였나. 그의 故意인즉을 가(蒙古서울)에 잇는 마이 다리아寺(侍佛寺)로 가고져 하였지마는 蘭州에서 甘肅省 將軍은 極度의 敬意를 表하고져 黃河의 水便으로 北京에 가서기를 請하였나. 그래서 그를 爲하여 北京의 黃 寺를 掃除하기로 하였나.」

一年前에 내가 다시 大喇嘛의 記憶을 가져와 나니 라치

喇嘛가 蘭州에 잇습을 보아 歐米人들의 訪問을 받은 일이 잇섯다. 이 記憶인즉 그의 聖人스러운 慈悲의 微笑는 眞實을 動할 때 마다 眞그의 全身은 超人間的 善과 慈悲의 光彩가 雲圍氣를 作한다. 이바람에 나는 時常 一年前에 四十七日間을 그의 聖刹中에 客이 아니 될 수 업섯 다. 이 記憶인즉 그가 갈사독 나의 재잇서서 이어 버러 지 아니한다.

一九〇七年春에 나는 나의 隊商群과 한지가 히마라야 山中에서 縱과 橫으로 다니었다. 이것으로 말하면 山理學의 方法에 依하여 히마라야山을 橫斷한 것이 다. 이곳에서 南便山脈과 主峯과 한가지 히마라야 山中의 大谷을 成하였스니 이 지포르或브라호미푸트라 (邊羅門子)江은 西出東流水이였다. 이에서 水便으로 下流하면 라치·喇嘛의 寺院이 잇는 市에 갈 수 잇다. 그때 나는 隊商群을 各各 히마라야의 橫斷의 方向을 定하여 보내고 旣부거운 行李들은 약대의 背질러 보내고 나는 말을 타고 前進하였나. 十餘日을 谷中으로 나 러움에 不願하고 十分의 一도 못나러 왔습으로 不得 己라 낙村에서 부러는 모든 것을 다 隨行員들의 托托 托托 하고 二人의 隨員과 一人의 西藏花工(사공)으로 되

부러 水路를 利用하였나. 南行하여 양유河와 昌로 河의 合水되는 곳에서는 나의 隨行人들이 定期에 기다 린다. 그래서 저서다 시말을 하고 영해入골로 올라가 니 해는 저서 暗黑한 中 밤中만 야사기제市에 드리 잤다.

支那人이 西藏의 主權을 가지엇습으로 山中으로 사 람을 보내여 나의 一行을 차져서 西藏으로 드리오지 못하게 하였스나 그들은 내가 시제市에 드리오지 못하러 갔다. 그래서 나는 該市 近處 園林中에다가 帳幕을 치 고나니 여계서는 라치론포聖寺가 잘 보인다. 여계서 지오고나니 支那人이나 西藏人들은 내가 여계에서 온 데 對하여 놀라기를 마지 아니한다. 理由인즉 그들이 全 誠力을 다하여 막으려고 追跡하였습에 不願하고 이 와가치 不知中에 왔습이다. 그럼으로 그들은 말하기를 나를 天上에서 내려왔나 보다 고를 생각한다. 이제는 그 들이 親切하여 지는 中 西藏人들은 더욱 大端히 尊敬하 고 親切한다.

나도亦是 大幸으로 新年慶節「노살」式을 보게 되엿 다. 喇嘛寺院의 大慶節이다. 나는 二月九日에 이곳을 드리왔는데 이慶節인즉 十一日에 始作한다. 儀式인

神들로 하여금 聖殿에 드려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징용을 허락마다 豆錫製의 風鑼를 다라서 微風만 吹動 하여도 嘹亮한 聲이 殿閣 寮舍·塔들에서 울린다.

이라 브를 안에는 至聖인 라치喇嘛가 住居한다. 그는 千八百八十二年에 誕生하였 고 千八百八十八年二月에 現存한다. 라치喇嘛가 得度及 聖職授與式(點眼)을 行하였 다. 그를 西藏語의 尊號로는 翁舍·보름·판첸·으린포 체(우침는·클·貴한師)이 오. 그는 阿彌陀佛의 化身이 라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佛 이 人身中에 化現한 이니 卽 化身·聖位의 尊嚴과 淸淨과 法智力인 즉 한 라치喇嘛·



(다한行者의 殿前의 塔이 卽 禮宗오) 廟塔의 喇嘛「차라」世一第

한다. 라치喇嘛보다 좀 더 한다 드내가 訪問하였을 當時인 즉 라치·몬포의 法王의 勢力이 唯一하였나니 그 때인 즉 라치喇嘛가 支那의 勢力으 로 以하여 逃避하였을 當時 이다.

나는 나의 隨員들中에 마 호뎃 教徒이 시를 通譯으로 다 리고 寺院市東門으로 드려 서 高位의 喇嘛卽 近侍喇嘛를 써라. 좁은 길을 지나서 라 브를 사이 좁은 길을 지나서 라 브를 木階를 由하여 올라갔다. 이 層階는 鐵로 綴을 하였는데 었지도 단연던지. 다다라서 僻靜한 聖地 巡拜者 들이 信者들은 이 木階를 손으로 만진다. 卽 한다.

우리가 지나가는 中路에는

주무엇이라고 이 악이 할 수 없을 만 한 畫片及 像으로 眞 逐魔舞를 第一世 라치喇嘛의 浮屠塔 앞에서 行한다. 現存한 라치喇嘛인 즉 第七世이니 三千八百의 僧侶와 無數한 聖地 巡拜者 들中에서 儀式에 參席하였다. 聖者의 命令은 나의 最 高處를 擇하여 자리를 定하여 주었으므로 이 儀式을 贊보게 되었었다. 내 자리는 黃色의 緞으로 莊嚴한 라치喇嘛의 자리 를 바로 붙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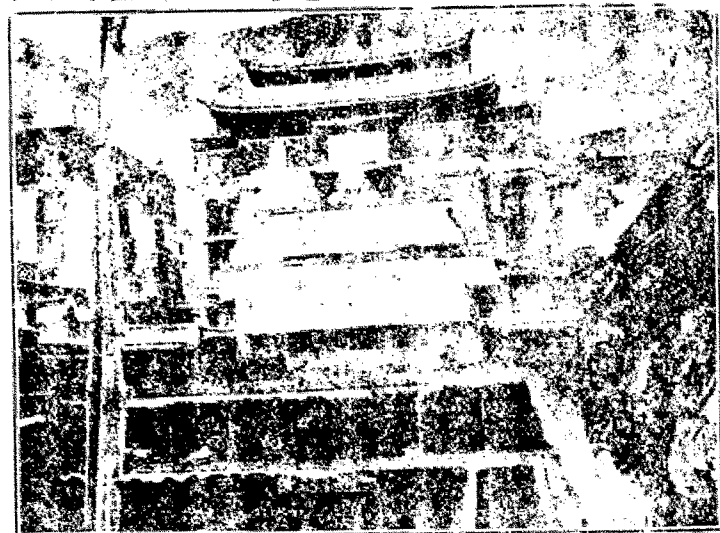
第二日에는 聖者는 나 를 불렀다. 그의 宮殿卽 라 브를 西藏의 파리간 (파리 간은 羅馬에 있는 法王의 眷屬인 僧院인 것은 區名이 오



景光는 하 戲演에서 中林園의 단의 團스어 들을 術幻은 서지 관에야 하 當節 慶의 年新

라 브를은 이 區內 中央에 있 는 法王의 宮殿(은 宏壯한 角形으로 殿閣과 寮院 들만 있는 寺刹 叢中에 소 사 있다. 西藏寺院의 建築 式은 特別하여서 異常하게 도 莊飾하여 만 초 綠을 羅 調和하였스니 그 堅實한 廳살이 라던지 亞華麗하게 壁장 두리에는 白色으로 漆을 하고 柱翁 및 柱 는 三四個의 黑線을 繪했 스며 窓의 上部에는 白布 를 드리어서 바람에 날리며 柱翁 위에는 寶鉢 柱가 든 것 들을 세웠스니 그것은 黃 色의 舍屬이나 木屬으로 만 드렸스며 或은 黑色이나 白色의 布屬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것은 凶惡한 風

僧侶들이 봉치공치저서서는
 때 그들은 머리를削刀로 깎
 면이 미웠다. 層梯를 올라갈
 사복 位가 높을 것을 표현한
 그려나는 한 조고마한房에
 드러가도록 引導를 받았었다
 이房은極度로 喇嘛의威嚴
 과華麗로莊飾하였다. 모든
 것이白色이 아닌黃色即聖
 色이오 佛像과神像들은金
 色이다. 여겨서 한적한
 親切한. 年長한僧이 나를
 迎接한다. 마치羅馬의리간
 에서하는것이나 무엇이냐
 물 것이었다. 피리간에서는
 法王의訪問者를 먼저갈디
 날(法王制中에法王의次位
 이니各地에散在하기도하지
 만法王의近侍도갈디날아타
 한다)이調査한後에 法王과



(다논안 의속圖布가線喇「지」는이時할行을式儀)•殿宮의喇喇「지」

而接識하는것과같다.
 그려여겨서 다시한層階
 를올라가서 한房에를드러
 가니 亦是僧이있어나를마
 즈면서 低聲으로무엇이라
 하더니 聖者가계신房門을
 열어준다. 그래서나는 한
 長方形의房안에를드러왔다
 이房은兩種으로房을만드렸
 나니 天井은天形으로만들
 고 內部便은外部便即入口
 便보다 바닷이높고 그中
 間窓近處에는茶卓을노았고
 또그옆에는阿彌陀佛의坐像
 을노았스니 跏趺坐를하였
 다.
 親切한微笑로恭順히 나
 의게두손을준다. 그의衣服
 은 다른僧侶들과 조공도
 다르지아니하게 單純하다

말하자면저구리·죽기·長衫에다가
 의袈裟를입었다. 이袈裟는羅馬의죽기(法王以下의
 各宗主의職名)들이 덕개에예고 색을을선것과조
 공도다르지안라.

두팔은다비서졌다. 오즉特別하다른것이있다.黃
 色質에金絲로間錯한죽기가 袈裟였호르내여다보이
 는것이다. 이것이最高位의表示라할바게 다른것은입
 다. 初面이것마는記憶되는것은 溫靜하고恬淡한다치
 喇嘛의氣韻이. 사담을調伏시킨다. 그의栗紅色眼瞼
 은 그의平和스러운·慈悲스러운和氣中에서 博愛
 의微笑를傳한다. 그의입술은 응즉인제마다 博愛
 의微笑와 恭遜의光彩를發하고 그의머리는 妙로
 계각것스나黑色이다. 윗입술近邊에는鬚髯의痕迹도
 업지안고 그의顔色은회다. 그러나西藏의太陽과楊
 子谷의바람과 氣候로因하여김어진 黃灰色도보인
 다. 그의全體는清淨·寡慾·神聖의氣分을發하여 그
 것이공치저光輝가된다.

그의一動一靜은 다를사담으로하야공 同情과親
 切을發하게하고 清淨한溫容은누구의계든지 歡心
 을發하게한다. 그의外貌的觀察로말하면 한恭遜한

佛敎 第三十一號

寺院의修道僧으로 혹포寺(同寺名)에서 窓으로날
 마다 罪惡만흔시가제와世潮를보고서 애처러워
 하리라마는. 그러나그는西藏의聖人이다. 그의眼
 瞼과 神奇스러운光輝를주는눈은 사람이이제파릴
 수없다.

라치喇嘛는 나와이악이를始作하였다. 그의이악
 이하는모양은 極히溫順하고從容하야 조공분그려
 워하는듯하더니 그氣色은漸時間업서지고 世時間
 을이악이하는中에 우리는全然히 親한親舊가되여
 졌다.

나의記憶中에남아있는 그의이악이와를을大略
 적어본다. 「창(北西藏)에서 처위를안이當하시었
 습닛가? 毛衣들과燃料들을 整準備하시었
 습닛가? 만흔猛獸도맞나시었고 食糧도걱정을만
 이하시었겠지요? 나는中路에서 山中險地에서苦
 狀이중저였기와 游牧民들이당신을 親切히接待하
 였기를바라지오. 내가당신을 이와가치接待함에對
 하여서는 容恕를하시여야합니다. 그러나나는 당
 신이이와가치오실들은 정말을렷습니다. 印度副王
 이 나의게片紙로 當신이오시리라하고 傳함은드렸

喇嘛가 있다 即西藏의 武力과 宮殿이오 支那便인즉라
 喇嘛이냐 即全西藏의 僧侶와 同人民中에도 歐洲
 勢力의 侵入을 실행하는 者들이다 라치喇嘛의 戒忠誠
 을 다하는 이를 辱罵하면 라사 近處에 있는 巨大한 財
 産을 가진 三個의 大刹이니 세라·브레봉·길딘이다
 이 寺刹들은 前日에 있어서 內政에 對하여서는 참으로
 有力하였다 現今인즉 支那가 默言하고서 다라이喇嘛
 가 英의 勢力에 依하여 政治하는 대로 내버리둔다 그
 래서 印度로부러 라사에 電信을 設하고 포라라(다
 라의 喇嘛의 宮室)에 電話를 設하였다 또 그의 軍隊는 英
 國制度를 採用하고 兵器·彈丸·砲屬은 印度로부
 러 輸入한다

日本은 歐洲로부러 戰術을 배와가지고 歐人의 勢
 力을 防禦하지마는 支那는 그 戰術을 가지고 將軍을
 세리의 內亂에 利用하여 同胞를 相殺하는 中이다 英
 國의 軍國主義는 極度의 平和 中에 있는 西藏에 輸入
 식히가지고 武裝한 西藏을 만듦고 이 武裝한 西藏은
 軍器로써 支那와 세라·브레봉·길딘·라치론모 大刹
 의 僧徒들을 對抗한다 今인즉 英國은 이에 對하여 全責
 任을 질수 있다 또 그는 同時에 다라이喇嘛는 將

來의 火山을 만듦고 안졌다 一千九百二十一年에 全
 西藏의 事情을 잘 아는 힐쓰·빌은 라사에서 다라이
 喇嘛의 顯聞인 同時에 極히 親近한 友人이다 그때그
 는 去年에 『西藏의 法王과 現今』 또는 『西藏의 去時와
 今時』 라는 冊을 著作하여 公布하였다

그래서 近來에 있어서 라사와 라치론모 間事情
 을 우리가 잘아지는 못하지마는 經驗에 依하여 正작
 하면 라치喇嘛의 支那側 同情은 라사와의 不和를 招
 하였고 이것이 度數를 減치 아니함으로 그는 不得已
 暗行으로 西藏을 떠난 것이다 그의 故意이냐 勿論
 支那로 가고자 함은 아니지마는 中路 蘭州에서 不得已
 하여 北京으로 向하게 된 것이다 支那의 外交家들이
 나 政治家들은 그들의 地位가 不整頓함에 不顧하고
 라치喇嘛의 勢力과 地位가 무슨 西藏에 當局한 것이 아
 니라 全喇嘛敎 天地에는 重要한 地位를 가지지는 故
 로 日後機會를 보아서 喇嘛敎徒에 依하여 英의 勢
 力을 崑崙山以南으로 쫓아 버리고 라치喇嘛의 聖殿
 을 다시 回復하는 것이다
 以上을 본우리는 西藏에 있어서 喇嘛의 地位가 何
 던한지 또는 西藏의 現狀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

다 또 라치喇嘛의 人格이 일마나하기에 風俗과 習
 慣이 다른 곳에서 生長한 歐洲大學者들의 初面的 印象
 이 이와가치 深切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만
 보아도 中央亞細亞사람들의 宗教的 實現力이 일
 마나한 것을 짐작할 것이다

우리의 半島에서는 佛敎가 輸入된 後로 모든 儀式
 과 寺院의 制度가 全히 西藏喇嘛敎의 그것과 彷彿하
 다 아마 거제서 온 것인 지도 알 수 없다 또 西藏의 佛敎
 는 우리가 推測하면 라神印宗만이 아니라 淨土宗
 이다 그러나 神印宗은 한方便으로 流行하지 아니하
 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半島人의 信仰인즉 그의 對象을 中央亞細亞
 人들가치 實現할 수 없다 그理由인즉 우리의 半島人
 은 信仰에 對하여 浮淺하지 못하다 그러나 同時에
 理想的 對象을 가지고 있다 現實에 入 것은 全部 冥지 아
 니한다 甚하게는 쇠기아문이 가 살아왔다 하도 라
 도 冥지 아니할 것은 確然하다 그렇므로 그다지 重
 要人物도 아닌 달마파라가 왓솔씨에 半島僧侶들은
 그가 妖僧이 겠다고 생각하였다
 모든 것을 알고져 아니하면서도 自己들이 알아가진

것이 무엇이 그다지 明確하기에 眞理였기에 英國
 博覽會에 保存한 쇠기아문의 家族의 畫相을 보고
 三十二相과 八十種好와 背後의 圓光이 업다고 眞物
 이 아니라 하야 無禮한 言辭를 發하는 다 이와가치 我
 慢스럽고 固執만코 即頑固하고 自己의 아는 것만을
 옳라하는 半島의 佛敎界는 오늘까지 未일 信仰하
 여 찾는가? 하는 問題이다

그 問題는 오즉 唯一한 實物을 超過한 理想的 對象이
 었다 古來로 有名한 人物들도 그들의 生時에는 無
 限한 逼迫과 虐待를 當하였다 그때다가 死後에야 비로
 오 理想的 崇拜의 對象에 一數를 添算하게 되어 왔다
 이와가 是例가 人類歷史에 있어서 자주 볼 수 있는 일
 이지마는 宗教의 社會에서 이와가 是例는 半島를 除
 한外에는 그다지 冥지 불수업는 것이다

半島에 入 信仰이 이와가 됨으로 半島中에 喇嘛와 가
 른 人物이 잇다 하면 誹謗으로 以하여 民衆의 罪惡한
 増益할 뿐이오 別로 利益은 업스리라 고 믿는다 半島
 에도 前日에는 僧統이나 總攝들이 잇섯지마는 그것
 은 오다 威力에 依함이오 法力의 感化로는 이익이
 할 것도 업섯다

佛學第三十一號

그럼으로 우리半島의信仰界에適當한것은禪宗이다 그러나이것이 그다지利益을만히주지못한것인즉 半島人의第一조야하는 理想的의信仰對象을堅持하기어려웠다 그럼으로多年參究하는禪客들이念佛을勵하는것이다 그들은 勇氣를내어서參究하지만恒常성실한노김이잇습으로 理想的의對象을그래도가지려하였다.

參禪이라하는것은 다른것이아니오 現今의意識哲學이니 이方式에依하여 엇은信仰인즉 죽기前에는이저바일수업습으로 그다지無識한僧侶가아니고는 退俗하였드라도 그의信仰은이저바리지어아니하는것이다 그럼으로 元曉는非僧非俗으로다니면서 同類의계蔑視를當함에도不顧하고 그의意識哲學的見識을 信仰上에다가發表하였나니 所作이야남들이 보거나말거나 自己가하고싶은것이닛가 單은것이다.

그럼으로이와가은 半島的天才를發達시키고 利用하자면 相當한機關이잇서서 以上과가은信仰을 가진者들의 便宜를圖한다면 半島의精神生活은新方面을開拓하리라잇는다 이러한機關을組織하라면

相當히研究할것이니 이方面에有意者가잇다면 相當히研究하기를바란다 (完)

元旦法語 (二)

新律機分 霞光轉曉 天色欲曙 暎冷 晨候似冬 惡春 蓋鴻蒙之未曉 乃磨滅之寒未退 時須頓頭 已屬東君 勿此知勞 共得勝歲 剛有一人 不在斯際 天地無由蓋載 寒暑豈得推遷 日月莫謂照臨 陰陽卒難變易 若救此人受歲 終是不甘 時節到來 又爭諱得 且道 受歲人與不受歲人 兩家相見 如何作賀 良久曰 寒隨一夜去 春逐五更來

(仰山簡禪師)

昨日去年去 今日今年來 去年去不去 今年來不來 編

野蓋尺雷 大地亡樓埃 無名無字人 舉目轉徘徊

(保寧勇禪師)

佛學界說

支那 李 灼 翊

佛敎는義緒가繁富하고 旨趣가渾含하여 그界說에잠시못하면 鑽研할道理가엄격되는지라 茲에簡略히十條를列擧하여 概要를示하노니 指를因하여 月을見하게된다하면 이것이智者의계바라는바이로다.

一、佛學은一元도아니며 二元도아니며 卽多元도아니니 一元이아니람은 無住로本을상는故로攝하지못하는것이업는사담이다。二元도아니람은 오즉眞實이오뜻이업서서 無明이업는사담이다。多元도아니람은 心·佛·衆生이 差別이업는사담이다。二、佛學은唯心도아니며 唯佛도아니니。唯心이아니람은 一物도바리지어아니하며 一塵도바리지어아니하는사담이다。唯佛도아니람은 一心에바리지어아니하는사담이며 一法도세우지안는사담이다。

三、佛學은佛分도아니며 衆生分도아니니。佛分이아니람은 衆生이各各覺心을自具하여 各各도로

自性을覺하는사담이다。衆生分도아니람은 單獨히諸佛의覺으로衆生을覺케한後에라사 衆生이能히自覺하는사담이다。

四、佛學은自作도아니며 他作도아니며 共作도아니며 卽無因作도아니니 自作이아니람은 諸佛覺을依치아니하고 能히自覺하는사담이다。他作이아니람은 諸佛覺이다하여사 져우自覺을잇으며 自覺의外에는 畢竟에無得인사담이다。共作도아니람은 諸佛覺과自覺이 各各不相到한사담이다。無因作도아니람은 自覺곳입스면 諸佛覺도能히되부러緣이되야 覺하게하지못하는사담이다。

五、佛學은世間도아니며 出世間도아니니。世間이아니람은 事가眞實이라 俗을可히得할수업는사담이며 出世間도아니람은 塵을離하고는업는사담이며 衆生이모다如한사담이며 一切世法이無非佛法인사담이다。